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92)(11/17/2021)

제 3 권 내적 위로

제 5 장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맺어지는 놀라운 열매들, 1-2 절

고후 1:3 -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이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시 32:7 -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시 59:16 -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니이다.

1. <제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주께서는 나 같은 보잘것없는 자를 기억하시고 생각해 주시니, 내가 주를 송축합니다. “자비의 아버지”이시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여(고후 1:3), 주께서는 주의 위로를 받을 자격도 없는 내게 온갖 위로를 허락하셔서 새 힘을 주시니, 내가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위로자”이신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무궁토록 늘 송축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오,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는 나의 영광이시고, 내 마음의 큰 기쁨이십니다. 주는 나의 소망이시고,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이십니다(시 32:7; 59:16).

2. 하지만 나는 아직까지 사랑이 약하고 덕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의 위로하심과 힘주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자주 찾아 오셔서, 주의 거룩한 훈계로 나를 가르쳐 주소서. 나를 악한 정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시고, 내 마음을 치유하여 온갖 무절제한 욕정을 없애 주셔서, 나의 내면이 치유를 받고 온전히 정결하게 되어, 나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고난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며, 끝까지 변함없이 인내하여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소서.

말씀과 해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우리의 신앙생활함에 대한 근본적인 그리고 본질적인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오직 그분을 통하여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 밖에 없는 나 자신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는 것이며, 아울러 그분을 나의 존재와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보다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믿음은 영접이며, 영접은 나의 중심에 주님이 거하시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다. 주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이며, 이러한 믿음이 삶에서 행해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한다.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영접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과 은총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하다. 다윗은 자신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볼 수 있는 자연을 통해 묘사했다. 시 18:1-3 - 1.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 여호와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3.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광야에서 도피생활 할 때에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자신을 지켜 보호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다윗은 삶의 자리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인식한 것이다. 그렇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내 주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다가온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다.

주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주어진다. 주님은 피곤한 자, 약한 자, 지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활력을 얻게 하신다. 사 40:28 -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9.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30.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고지 아니하시는(사 42:3) 자비의 하나님으로서 상처 입은 자의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 호 6:1 -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출 15:27).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 요 3:16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확인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요일 4:10 -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이다. 요일 4:11 -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한다. 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며, 멀리서 오는 것도 아니다. 은혜는 지금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며, 그 은혜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나에게 스며들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리고 그 은혜는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람을 사랑해야 하며, 주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작은 은혜의 통로로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할 것이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오늘도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함으로, 우리도 주님과 사람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2.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파괴되어 가는 생태계가 주의 은총 가운데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연 보존을 실천함으로 주님의 회복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3.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당하는 교우들에게 치유와 위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